# "논문 일부 중복 있지만 문제 없다"

## 전남대 연구윤리위, 총장 당선자 논문 의혹 회견

## "조사위원 명단 공개는 불가" 공정성 논란일 듯

김윤수 전남대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 논란에 대해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찬국 대학원장)가 "일부 중복은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대 연구윤리위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전문가 2명과 교내 교수 5명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김 당선자의 논문들이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대는 조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 '불가' 원칙을 고수해, 일부에서 제기한 '조사위원들이 김 당선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에 따른 조사의 불공정성 논란까지 잠재우진 못했다.

연구윤리위는 조사 대상이던 12편의 논문 중 8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만장일치로 '이중게재가 아니다'는 결론을 얻었다. 원 논문과 후 논문이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했거나 실험 재료가 다른 것으로 판단, 두 논문 사이의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나머지 4편 중 1990년에 출간된 2편의 경우 짧은 서간형태의 국제논문과 일반적 길이의 국내논문 간 중복성을 조사한 결과, "이중게재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동수였으나 논문 발표시점이 이중게재나 인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중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는 또 전남대가 준용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지침을 인용해 "짧은 서간형 논문을 출간한 뒤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대의 조사 결과발표로 김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일단락됐으나, 교내 조사위원 5명 중 2명이 총장 선거에서 김 당선자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강정채 총장과 같은 의대 소속 교수라는 점 등 때문에 조사위의 신뢰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연구윤리위는 21일 오후 전남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윤수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인 임영철(왼쪽) 전남대 산학연구처장이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아파트에 사설 경마장 … 80억대 편취

## 광주 쌍촌동서 … 전남경찰청 5명 구속영장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광주시내 아파트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불법 발행한 박모(50)씨 등 5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마권을 1장당 10만원씩 판매해 총 103회에 걸쳐 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마권을 주문받아 우승마에 적중하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입한 마권 금액의 20%를 환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평 형대의 아파트 응접실에 대형스크린 등 한국마사회 실시간 경마 중계시설을 설치해 놓고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배당판과 경마중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모집책을 동원해 광주 등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경마장 등지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 관련 장부 및 거래통장을 압수해 서울·대전 등에 있는 센터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지역 초·중·고 찜통교실 사라진다

## 도교육청, 262억 들여 내달말까지 냉·난방

전남도내 모든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총 사업비 262억원을 투자해 8월 말까지 일선 초·중학교 보통교실 4천269곳에 대한 냉·난방 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지역 861개교(초 452곳, 중 250곳, 고 152곳) 2만1천여개 보통교실에 냉·난방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교실환경 개선에 나서 지난해까지 도내 모든 공·사립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냉·난방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냉·난방 시설이 완료되면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 혹한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며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학교 운영비 지원도 늘렸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수뢰·수재사범 최고 5배 '벌금 폭탄'

## 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물을 실제 수수한 경우뿐 아니라 요구·약속만 해도 적용되며 액수가 3천만원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는 물론 3천만원 미만인 형법상 뇌물죄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을 수수·약속·요구했을 경우 징역형과 함께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반드시 부과된다.

아울러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 전국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생긴다

## 경찰청, 내년 설치 운영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는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의 형태와 의미만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신호등은 빨강·파랑·주황 등 기본 3색으로 진행과 정지를 지시하게 되고 둥근 모양의 자동차 신호등과 사각인 보행 신호등과 다른 형태로 제작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취지"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추세라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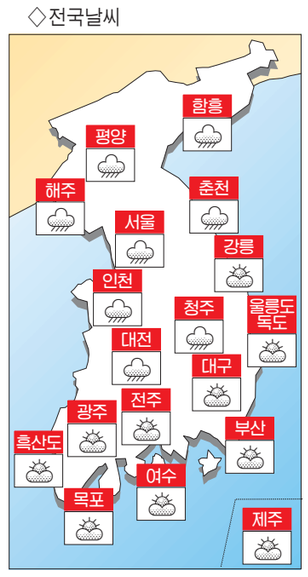
## 대서(大暑)답지 않은 대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7월 22일** (음 6월 20일)

◇전국날씨

| | | |
|---|---|---|
| 광 주 | 구름 많음 | 24~31℃ |
| 목 포 | 구름 많음 | 24~29℃ |
| 여 수 | 구름 많음 | 24~29℃ |
| 완 도 | 구름 많음 | 24~31℃ |
| 구 례 | 구름 많음 | 24~32℃ |
| 해 남 | 구름 많음 | 24~31℃ |
| 장 흥 | 구름 많음 | 24~31℃ |
| 고 흥 | 구름 많음 | 23~31℃ |
| 순 천 | 구름 많음 | 23~32℃ |
| 영 광 | 구름 많음 | 24~30℃ |
| 진 도 | 구름 많음 | 24~31℃ |
| 전 주 | 구름 많음 | 24~31℃ |
| 남 원 | 구름 많음 | 23~30℃ |
| 흑산도 | 구름 많음 | 22~27℃ |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4:42 16:54 썰물 09:55 22:01
여 수 밀물 11:27 23:46 썰물 05:21 17:19

▲해뜸 05:34 ▲해짐 19:43 ▲달뜸 21:52 ▲달짐 09: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3(수) | 24(목) | 25(금) | 26(토) | 27(일) | 28(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5/31 | 25/32 | 25/32 | 26/31 | 25/32 | 25/32 |

# 기상청 예보 못 믿겠다

## 고객만족도 'D학점'

기상청의 기상예보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D학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이 2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기상행정혁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보서비스 만족도는 200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6.4점과 66.0점으로 평균 66.2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만족도 71.1점에 비해 4.9점 떨어진 수치였다.

예보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48.9점에 그친 6개월 예보였고, 3개월 예보(50.5점), 1개월 예보(54.3점), 국지기상정보(62.3점), 주간예보(64.6점), 단기예보(70.6점), 기상특보(71.9점)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기상청이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본청과 5개 지방기상청, 36개 기상대 예보 관할지역의 주민 등 9천35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불법적인 분양전환을 강행했다"며 건설업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2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부영의 관할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부영이 지난 2005년 12월 해당 지자체의 분양전환 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임차인 900여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강행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했으나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전환 당시 부영은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 동의서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양해 줄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분양전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며 분양전환 가구 중 5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분양가에 합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